



황하에서 가옥관(밤기차)

가옥관으로 출발하기 전에 들러야 할 곳이 남아 있다. 원나라 때에 라마교를 기념하여 세운 백탑사이다. 황하는 물론 란저우 주요부가 내려다보이는 장소이다(사진).



백탑산으로 오르려면 황하를 지나야 한다. 물론 어제 황하를 건너오긴 하였지만 드디어 걸어서 황하를 건넌다. 나하곤 관계 없는 일이지만, 중국인에게 황하는 의미가 대단하다. 중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황하모친상이 있다(사진). 우리는 황하 첫 다리인 중산교(中山橋)를 건넜다. 실크로드를 다니는 상인들이 여기서 황하를 건넜다. 물론 당시는 다리가 없었고, 양가죽을 이용하여 건넜다 한다(사진). TV 다크에서 보니, 오늘날에는 양가죽을 이용하여 강을 건너는 경기를 한다. 양가죽에 바람을 넣어서 그것을 타고 건너는 것이다. 중산교는 인파와 자전거로 정신이





없었다. 필자는 일행에게 주머니 조심을 당부할 정도였다. 주변에서는 라마 승려도 간혹 눈에 띈다(사진).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오른다고 부지런히 백담산 정상으로 향하였다. 사찰 입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려 하였는데, 날씨가 얼마나 더웠던지 냉동고 안의 것이 모두 녹아 있다. 입장료를 내고 가는 곳이지만, 백담산은 앞에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여러 모로 가볼만 하다. 백담사 주변에 이슬람 사원이 둘러싸다 시피 한 것도 인상적이다. 백담은 원의 정기스칸이 티베트 불교의 불법을 청하자 라마가 몽골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란저우에서 숨을 거둔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정상에 이른 권교수님은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안타까웠다. 전에는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권교수님은 그후로 젊은 학생들보다도 더 많이 빨리 움직이셨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드신 중에도 쉬운 코스를 택하지 않고 올랐던 길

을 다시 내려오셨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중국인이 건조한 곳에서 어떻게 나무를 키우는지 즉, 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를 보여주셨다(사진). 이 기회에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란저우에서의 저녁은 대접을 받는 느낌이다. 음식 맛은 물론이고 서빙하는 아가씨도 진심이라 보인다. 라면도 맛있고, 빼갈도 역시. 그 바람에 중국 식당에서 처음 지갑을 만져본다. 저녁을 먹고 나오니 주변의 시장은 텅 비었고, 컴컴하다. 전기를 참 아끼는 것 같다.

란저우역에서도 역시 컴컴하다. 아직도 낮의 열기가 넘치고, 대합실은 인파로 북적인다. 잠시 세수하고 온 사이 로컬 가이드 쉰 웨이는 떠나고 없다. 작은 선물(소주 외)을 주려고 했는데. 그녀는 전날 공항에 마중 나올 때 빨간 장미를 한 송이 씩 선물하여 감동시켰다.



기차는 4명이 한 방을 쓰는 것이고 방에는 이층으로 된 침대가 있다. 말이 전혀 안 통하는데 한 아줌마가 뭘 들고 왔다. 손짓으로 보아 그걸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이다. 혹시 마약인지 아님 독주인지 알 수 없어 그냥 손을 내저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다. 옆방에서는 일단 뚫었다. 그러니 그것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고. 애들이 난리다. 안타깝게도 그것을 해결 못하고 필자에게 달려온 것이다. 속이 상했다. 그것 하나 해결 못하는 것에. 결국 송씨가 동원되고, 알고 보니 요구르트라 한다. 값은 5원(약 600원). 이왕 뚫은 것 마시자고 하였다. 그 바람에



배가 흔들린 것인지 기차라서 배가 흔들린 것인지, 배가 흔들렸다.

잠에서 깨어보니 끝없는 자갈 사막이 계속이었다(사진). 자갈 사막을 고비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 오후에야 알게 된다. 멀리 가옥관시가 보인다. 발전소와 공장 건물 등이 도시의 풍

경을 짐작하게 한다. 가옥지역은 그냥 작은 시골 역보다 조금 커 보인다. 사람이 왠지 지껄하는 것도 아니고. 조선족 로컬 가이드와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도시의 풍경은 그저 밋밋하다. 아침은 밤에 흔들린 배 때문에 처음으로 대충 넘어갔다. 삼성급 호텔에 딸린 식당이라는데 화장실은 우리 시골 만 하다.



처음 행선지는 위진벽화묘이다. 사실 별 관심이 없다. 묘는 광대한 자갈 사막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고, 거기서 바라보는 설산(기련산)이 불만하다(사진). 관리는 엄격하여 입장시 사진기를 모두 빼앗는다.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이다. 며칠 후 엉뚱한 곳에서 이곳의 벽화 사진을 찍



을 수 있었다.

후에 등장하지만 소가 밭을 갈고 있는 그림이라 어쩔 땐 훗날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그렇지만 그 뿌영던 곳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썰렁한 위진벽화묘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마을에서 들러 물 관리 상태를 볼 수 있다. 마을의 물은 지하수를 퍼 올려 높은 탑의 물탱크로 보낸 후 사용하는 모양이다(사진). 주변 농장에서는 젊은 한족 가족이 옥수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낯선 사람이지만 반갑게 웃어 주었다(사진). 참으로 고마웠다. 웃음이 그렇게 좋은 것이다. 물을 관리하는 모습은 우리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물이 귀하고 증발이 많을 터이니.



마을을 제외하곤 모두 사막이다. 하늘에서 본다면 도로를 따라서 긴 초록과 그것으로 이어지는 조금 넓은 면적의 초록, 그 외는 황무지였을 것이다. 그 황무지를 가로질러서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물길이 이어진다(사진). 역시 떨리는 설산이다. 이런 황무지는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송씨도 이야기 한다. 여기에 물을 대면 결국에는 어딘가에서는 물이 모자라지 않았냐고. 그 쉬운 진리를 왜 정책 입안자들은 모르는 것일까? 그러나 이미 개간이 많이 진행되어 있다. 한 쪽은 이제 물만 대고 거기에 포도나 무를 심는다면 옥토로 바뀔 준비가 끝나 있다(사진). 우리는



관개로 망한 곳을 잘 기억하고 있다. 바로 아랄해. 아랄해를 살리려면 유역 국가에서 3년 동안 농사를 포기해야 한단다. 중국에서도 그런 날이 오면 어찌려고.

이제 이렇게 실크로드를 달릴 위밍업이 끝났다. 이제부터 비로소 실크로드로 접어든다. 그 첫 행선지로 가옥관으로 간다. 가옥관은 만리장성의 서쪽 끝이다. 즉, 여기서부터 바로 서역인 것이다.